

일제 시대 여성문학에 나타난 구여성의 정체성에 관한 연구

김민정*

1. 머리말
2. 일제 시대 여성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3.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의 허구성
4. 일제하 구여성의 변모와 여성정체성의 형성
 - (1) 가부장이 부재한 공간의 체험과 「소금」
 - (2) 공적 공간의 체험과 「인간문제」
5. 맺음말

* 포항공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국문초록

페미니즘 논의에서 제기된 '젠더 정체성'이라는 분석틀은 피해자인 여성과 억압자인 남성이라는, 두 개의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현실을 구조화할 수 있다. 종속적 입장을 공유한 피해자라는 관점으로 여성을 인식하는 것은, 결국 제3세계 여성들을 정체된 물 역사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이 된다. 특히 일제치하의 구여성은 인고와 희생이라는 획일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로 대상화된다. 이제 식민지 구여성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인식이 요구되는 때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제 시대 구여성을 성적 불평등과 계급적·민족적 착취의 희생자, 아니면 현실에 저항해 적극적으로 싸우는 주체라는 식의 획일적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한다. 말하자면, 당시 여성 집단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요소들 못지 않게,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수동적인 존재들이 '근대적 자각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었던 삶의 조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경애의 「소금」과 「인간문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소금」은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상황에서 가부장이 부재하는 공간에 놓인 여성의 체험과 의식의 변화를 다루었고, 「인간문제」는 자본주의적 가부장제 하에서 사적 영역에 갇힐 수밖에 없었던 여성이 공적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자각하게 되는 과정을 형상화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이러한 텍스트 연구를 중심으로 일제 치하의 현실과 여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이 가능해짐으로써 '신여성'뿐만 아니라 '구여성' 역시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의 일부를 구성하는 주체였음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다.

핵심어 : 이분법, 식민지, 구여성, 신여성, 여성문학, 가부장제, 여성정체성, 근대성

1. 머리말

인간의 성적체성이 생물학적 속성 이외의 다른 사회문화적 속성들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이 강조된 지 이미 오래다. 이러한 과정에서 제기된 ‘젠더 정체성’이라는 분석틀은 이후 여성 주체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오늘날 대다수 페미니즘 담론이 전제 혹은 합의하고 있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하다. 그런가 하면 이러한 분석틀은, ‘성’이라는 것이 해당 사회의 지배 담론을 통해서 주로 이해되고 형성되는 현실에서 자본주의적 성별 분업에 따른 여성의 종속을 영속화할 수 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우선, 젠더 차이를 통해 단일한 여성 범주를 설정하는 것은 곧, 생물학적 본질주의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여성을 이미 구성된 동질적인 집단으로 간주하는 것이 된다. 모든 여성은 계급이나 문화적 차이와 상관없이 억압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으로 자기 정체성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듯 여성이 남성과 대비되는 종속적 관계를 통해 하나의 일관된 집단으로 구성될 때, 또한 남성은 암묵적으로 이러한 관계에 책임을 지는 존재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은 피해자인 여성과 억압자인 남성이라는, 두 개의 상호배타적인 집단으로 구분되어 구조화되어 버린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미 불평등하게 분배된 권력의 소유 관계에 의해 남성은 착취하고 여성은 착취당한다는 식의 단순화된 이분법적 공식이 불가피해진다.

뿐만 아니다. 이와 같이 단일하고 동질적인 가부장제나 남성 지배의 개념에 기반한 통문화적 성차 분석에 의하면 여성 내부에 존재하는 현실적인 차이가 제대로 인식될 수 없다. 여성이 일반적으로 종속되고 억압받기 때문에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되어 스스로 이분법적 체계에 갇혀 버린다면, 여성 내부의 차이를 인식하고자 하더라도 그것은 ‘서구 여성’ 대 ‘제3세계

여성'이라는 또 다른 이분법을 낳게 된다. 말하자면, 제3세계 여성은 사회적으로 제약된 젠더에 기반하여 무식하고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하고 전통에 얽매인,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가족지향적인 희생자 등의 열등한 이미지로 고착된다. 이는 교육받고 근대적이며 자신의 육체나 섹슈얼리티에 대한 통제권을 갖고 있으며 또한 스스로 주체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자유롭게 자기재현을 할 수 있는 서구 여성과 대비된 결과이다. 제3세계 대부분의 여성을 정체된 몰역사적인 존재로 그려냄으로써, 여성의 식민화를 지양하기 위해 고안된 분석틀로서의 페미니즘은 결국 그 내부의 담론적 동질화와 체계화를 통해 또 다른 권력 위계 현상을 낳고 나아가 여성에 의한 여성의 '식민화'를 초래하고 마는 것이다.

요컨대, 종속적 입장을 공유한 피해자라는 것이, 넓게는 여성 일반을, 좁게는 제3세계 여성 그 자체를 하나의 집단으로 묶어주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이들 여성 집단은 항상 어떤 주체적 지위도 갖지 못한 무정치적 집단으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남성과 여성 간의, 그리고 여성 내부의 이항대립관계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며, 그럼으로써 여성 자신이 사회적 억압에 대한 전략을 고안하는 데에서도 한계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껏 한국여성문학연구의 흐름은 서구와 제3세계 간의 긴장관계 속에서 전개된 페미니즘 이론의 문제의식을 반영해 왔다. 바로 그러한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이 글은 여성들 간의 차이에 관심을 갖되,¹⁾ 특히 일제 시대 '구여성'의 존재에 주목하고자 한다. 당시 구여성은 여성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여성을 둘러싼 담론에 밀려 사회적으로

1) 여성들 간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지만 그런 차이 못지않게 여성들을 하나로 묶는 동질성도 존재한다. 그러한 동질성은 자본주의와 가부장제라는 삶의 토대와 그 속에서 여성으로서 겪는 '다르지만 유사한' 경험들에서 비롯된다. 이와 같이 '유사함'과 '차이'의 공존으로 인해 여성문학을 바라보는 시각을 정립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전제하고 있는 점은 여성 내부의 서로 다른 집단이나 개인 간의 차이를 분명히 인식할 때 비로소 그들 사이의 유사점이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존재성이 매우 희미했으며, 게다가 오늘날 여성주의 담론이 신여성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들은 여전히 관심의 음지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이다.²⁾ 남성들에 의해, 당시 신여성들에 의해, 그리고 이제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구여성은 겹겹의 소외를 겪어온 존재인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신여성 대 구여성'이라는 이분법적 범주화를 비판하면서, 일제 시대 '구여성'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제 시대 하층 여성들의 현실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던 강경애의 주요 소설 텍스트(「인간문제」, 「소금」)를 선정하여, 당시 극도로 열악한 현실 조건 속에서 정태적이거나 획일적인 삶에 결코 안주하지 않았던 '구여성'들이 어떻게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을 형성해 나갔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2. 일제 시대 여성문학을 바라보는 시각

일제 시대 문학을 논의할 때에 식민지 여성에 대해 거론하는 것은 복합적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사회적 권력이나 경제적 관계라는 일반적인 변수들 이외에 식민지 상황에 고유한 민족 문제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도 남성에 대한 여성의 관계라는 젠더의 문제가 착종되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여성 내부의 '차이'에 대한 문제이다. 예컨대 일제시대 '신여성'과 '구여성'의 관계는 바로 이러한 문제가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2) 최근 여성문학계 내에서 일제시대 '신여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비해 '구여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단독 논문으로는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 연구』(소명, 2001)가 거의 유일하다시피하다.

계급, 민족, 인종적 입지와 무관하게, 그리고 모순 없이 동일한 이해관계나 욕망을 갖는 이미 구성되어진 일관된 집단으로 그려지는 여성이라는 전제는 보편적이고 통문화적으로 적용 가능한 젠더 개념이나 가부장제라는 개념을 함축한다. 남성과 여성이 사회적 관계의 영역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이미 성적·정치적 주체로 구성된 것으로 단정해 버림으로써, 여성이 이러한 관계를 구성하는 데 포함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존재이기도 하다는 점이 쉽게 간과된다. “인간 사회 생활에서 여성의 장소는 그녀가 하는 일의 산물(혹은 그녀가 생물학적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가)을 통해 직접적으로 도출되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행위가 구체적인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하는 의미를 통해 도출된다.”³⁾

‘젠더 정체성’이라는 분석틀이 지닌 이러한 한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담론적으로 구성된 집단으로서의 여성과 자신의 역사를 갖는 물질 주체로서의 여성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적으로 합의된 동질화된 집단으로서의 여성이, 역사적으로 현존하는 물질 실체를 갖춘 집단으로서의 여성으로 흔히 오인되곤 한다. 단적으로 말해서, 그렇다면 ‘젠더 정체성’의 분석틀은 일제 시대 여성문학을 논의하는 데에 적절한 방법론이 될 수 없다. 개개인의 삶이 그러하듯이, 여성들의 삶의 태도와 방식은 매우 다양하다. 같은 서구 사회 내에서도 중산층 여성의 삶의 지향과 가난한 노동계급 여성의 그것이 다르며, 남미계 여성과 아시아계 여성의 역사적 맥락과 요구 또한 서로 다르다. 따라서 보편적인 자본주의적 가부장제를 전제로 한 하나의 페미니즘은 지양되어야 한다. 남성과는 다른 여성의 특수한 현실이 페미니즘을 낳았듯이, 여성 현실의 변화와 그 다양성은 이제 복수의 페미니즘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⁴⁾

3) Chandra Talpade Mohanty, 「서구의 시선 아래」, 『경계 없는 페미니즘』, 문현아 역(여이연, 2005), p.48에서 재인용.

4) 여기서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젠더 이론론이 포괄하지 못하는 여성들 간의 차이

일제 치하의 조선이라고 하여 예외일 리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시대 조선 여성들의 표상은 남성적 혹은 민족주의적 시선에 의해 획일화되어 있고, 심지어 그들의 존재는 아예 보이지도 않고, 목소리는 들리지도 않는다. 일제 시대 다양한 문화 텍스트들을 통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해진, 전통과 남성지배의 희생양으로서의 정태적인 여성 이미지는 따라서 관념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말하자면, 여성에 대한 이러한 재현 방식은 실제 식민지 여성들의 삶과 의식으로부터 매우 동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서구 중심적인 것이기도 하다. “제3세계 여성들의 삶이 갖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이질성을 식민화하려는”⁵⁾ 서구 페미니즘의 연구 경향에 무의식적으로 경도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생기는 것도 이러한 정황과 관련되어 있다. 오늘날 페미니즘 문학 연구와 실천에서 “[개념으로서의] 여성Woman”(과학, 문학, 법률, 언어, 영화 등등과 같은 다양한 재현의 담

에 주목하여, 여성 범주의 해체로 나아가는 견해도 없지 않다는 사실이다. 단일한 여성적 속성을 가정하는 것은 이성애적 이분법을 강화하는 것이고, 나아가 이성애에 기초한 가부장제에 기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물론 여성들 간의 차이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여성’ 범주의 해체로 나아가는 것은 분명 너무 성급하다. 전 세계 여성들이 처한 상황이 서로 다르다 하더라도, ‘여성’이라는 범주로 묶을 만한 공통된 억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어떻게 차이를 인식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야트리 스피박의 전략적 본질주의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여성들 간의 차이들은 인정하되, 아직은 전략적으로 여성의 정체성을 가정하고 ‘여성’ 범주를 사용하지는 것이다. 즉, ‘전략적 본질주의’는 차이들을 인정하면서도 연대의 요구를 부정하지 않는, 다시 말해서 해체적 요구와 실천적 요구 중 어느 하나도 버리지 않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Gayatri Chakravorty Spivak, 『다른 세상에서』, 태해숙 역(여이연, 2004) 참조.

5) Chandra Talpade Mohanty, 「서구의 시선 아래」, 『경계 없는 페미니즘』, 문현아 역(여이연, 2005) 참조.

모한티의 이 저서는, 제3세계 여성에 관한 대부분의 서구 페미니즘 저술이 갖는 유용한 가치를 무시하지 않는다. 그는 한편으로는, 제3세계 여성을 특수한 시선에서 바라본 서구 페미니즘의 재현 방식이 제국주의와 공모할 수 있음을 지적해 내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특권적인 자민족중심주의적 보편성을 경계한다. 궁극적으로 그의 비판은, 자신의 권위적인 주체를 준거로 삼아 문화적 타자를 코드화하고 재현하는 경향을 향해 있다.

론을 통해 문화적, 이데올로기적으로 구성된 타자)과 “[현실로서의] 여성 women”(이 여성들의 집단적 역사에 대한 실제적, 물질적 주체)의 관계)에 대한 탐구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게 된 것 또한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페미니즘의 목표는 단지 여성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남성이 전통적으로 여성을 통제하고 착취해 왔던 것과 같은 방식으로 타자를 지배하고 착취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으로부터 여성 스스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따라서 여성의 특성을 활용하고 특권화하여 여성 내부의 다른 영역을 식민화하는 것은 오히려 페미니즘에 역행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제 시대 여성 문학에 대한 논의 또한 이러한 전제를 공유하는 데에서 출발해야 할 것이다. 특히 1920, 30년대에 존재했던 소위 ‘신여성’과 ‘구여성’의 관계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본 논의에 있어서 이러한 전제는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3.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인식의 허구성

일제 시대의 ‘신여성’이란 1920년대 들어 여성이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가지면서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여성 집단으로서, 이들은 당시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신여성에 대한 시선은 사회의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달라졌다. 근대 초기에 봉건 사회를 청산할 긍정적 세력으로 부상하였던 신여성은, 1930년대에 이르러 일제에 의한 근대화가 본격화되면서 새로 형성된 기득권을 중심으로 사회가 점차 보수화되어 가자, 허영을 일삼는 타락한 존재로 비난받았다.⁷⁾

6) Chandra Talpade Mohanty, 위의 책, p.38.

신여성이 등장함에 따라 신여성이 아닌 여성은 자연스럽게 ‘구여성’이라 규정되었다. 대부분의 이분법의 용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구’여성이란 자립적으로 생겨난 말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신’여성과의 관계 속에서만 규정될 수 있었던 것이다. 즉 신여성이 등장하면서 신여성이 되지 못한 이들이 ‘구여성’으로 묶여지고 사회적으로 담론화되었다.⁸⁾ 신여성이 남성의 타자였다면 구여성은 타자화된 신여성의 타자였다는 점에서 이중으로 타자화된 존재였던 것이다.

사실, 구여성이란 관습적 삶을 유지해온 여성들로서 근대 이전부터 늘 존재해 왔던 집단이다. 그리고, 전통적인 시집살이를 하는 도시 여성과 대부분의 농촌 여성을 포괄하는 구여성은 일제 시대 여성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당시 식민지 조선에서 도시화가 꾸준히 진행되었다고는 하나 인구의 80~90% 가량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조선 여성의 대부분은 이 범주에 속한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었다.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여성은 자립적인 존재일 수 없었다. 그들은 신여성의 대립항으로서 그 존재가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기에, 신여성에 대한 사회의 시각이 변

7) “구한말 고종이 스스로 모범을 보여 단발을 하고 양복차림으로 단발령을 내렸을 당시 유생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발과 중절모는 개화와 문명의 상징이 되었고, 식민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성의 양풍은 관과 지식인의 상징이 되었다. 하지만 신여성 스타일의 트레머리와 통치마, 뽀족구두는 기껏해야 서양 것에 대한 추종과 ‘부르주아적 결멋’의 상징으로 읽힐 뿐이었다.” 김수진, 『신여성』, 열려 있는 과거, 맺어 있는 현재로서의 역사 쓰기, 『여성과 사회』(한국여성연구회, 2000), p.24.

8) 당시 주요섭은 신·구여성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첫째 ‘늙은 구여성’은 신여성들로 하여금 대가족제의 모순을 통감케 하는 인물이고, 둘째 ‘젊은 구여성’은 저임과 착취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며, 셋째 ‘신여성’은 자유연애, 자유결혼을 꿈꾸면서 기본적으로는 이상적 가정의 현모양처가 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인물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주요섭, “신여성과 구여성의 행로”, 『신여성』(1933. 1), pp.33~35 참조.

9) 전경옥 외, 『한국여성근현대사①: 개화기-1945년, 한국여성문화사』(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p.54.

화함에 따라 구여성에 대한 시각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했다. 신여성에 대한 인식이 '시대의 선구자'에서 '가정에 파탄을 일으키는¹⁰⁾ 여성'으로 변질되어 가면서, 정숙함과 순종의 이미지로 대변되는 구여성에 대한 예찬은 점점 더 공공연하게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들이 마치 새로 등장한 집단이거나 한 것처럼 새삼스럽게 '구여성'이라 명명되고 신여성과의 대립 관계 속에 배치되는 것은, 자유와 해방을 추구하는 신여성을 견제하기 위한 새로운 남성적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여성의 면모를 전통적인 정숙함과 순종의 미덕을 갖추었다고 부각시킴으로써¹¹⁾ 이는 신여성을 비난하는 기제로 적극 활용되었다. 신여성의 대립상이 신남성이 아니라 구여성이라고 할 때, 남성은 신여성과 구여성이라는 기이한 대립을 구축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¹²⁾ 다시 말해서, 이러한 대립적 관계를 통해 양자 간의 차이를 극대화하거나 그들을 가부장제 기준 하에 재배열하였던 것이다. 남성 지배의 가부장제를 신여성과 구여성을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배치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타자화시키도록 만들었다. 모성과 여성스러움을 필요로 할 때면 자의식적인 신여성을 타자화했고, 근대적인 지식과 신가정을 필요로 할 때면 구여성을 신여성의 타자로 만들었다. 결국 1930년대 이후에는 '신여성은 연애의 대상, 구여성은 결혼의 대상'이라는 이분법이 형성되어 남편에 고분고분하고 그의 입신양명을 위해 헌신하는 구여성을 예찬하는 담론이 보편화되었다.¹³⁾

10) 박노아, 「여성공황시대」, 『별건곤』(1930.7), p.79.

11) 1920년대 현진건의 단편소설 중 「빈처」, 「술 권하는 사회」, 「타락자」 등에 등장하는 구여성의 형상은 이러한 경향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물론 여성들 내부에서, 신여성은 구여성을 계몽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멸시하고 동경하는 한편, 구여성은 신여성을 천박하고 문란하다는 이유로 계도의 대상으로 여기면서 질시하고 동경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마저도, 신여성이나 구여성이나 모두 남성 중심의 사회의 요구에 의해 구성된 젠더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12) 전경옥 외, 앞의 책, pp.69~86 참조.

13) 특히 이러한 편견을 유포하는 데 이광수, 김동인, 현진건, 염상섭과 같은 당대의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일제 시대 신여성과 구여성 간의 대립적 인식이 두드러진 데 비해,¹⁴⁾ ‘신여성’과 ‘구여성’이라는 각 범주의 실체와 범위는 매우 모호하다. 당시 여성에 대한 담론을 통해 드러나는 바로는, 사회의 한편에는 신교육을 통해 새로운 사상을 수용하고 민감하게 유행을 좇는 여성이 있고, 또 다른 한편에는 무기력하게 착취당하고 성적으로 유린당하는 여성이 존재하는데, 사실 이들 간의 구분은 매우 명확해 보인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시 신여성이라고 하여 면면이 모두 화려하지 않았고 하나같이 연애를 지상의 가치로 믿은 것도 아니었으며, 반대로 구여성이라고 가족의 폐쇄성 안에서만 살거나 정체된 삶에 안주하지 않았다. 약과 잡지 행상으로 근근이 생활을 꾸려나가는 고학생이 있었고 사회 개혁의 과제에 몸 바친 투사가 있었으며 억척스럽게 생활 전선에 나서야 하는 슬한 어머니들이 있었다.¹⁵⁾

신여성들 중에는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자기희생을 감수하면서 가부장제가 요구하는 여성의 미덕을 내면화하는 경우도 많았다. 1930년대 들어와서는 생활이 경제적으로 더욱 위태로워지자 수많은 신여성들이 학교가 아닌 공장, 사회로 내몰리게 되었다. 역시 그들은 어떠한 직장에서든지 남성들보다 한층 더 심한 자본의 착취에, 가정적, 사회적 이중, 삼중의 착취를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와 같이 당시의 신여성들은 각성된 머리와 전근대적인 가부장제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몸의 분열 상태에 살았던 것이

유명한 남성 문인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은 많은 여성 문학 연구자들에 의해 이미 밝혀져 있다. 이들 주류 남성 작가들에 의해 구여성은 가족을 위한 희생과 인고의 면만 적극 부각되어 전근대의 상징으로 재현된다.

14) 여성을 바라보는 이분법적 시각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신여성 내부를 향한 이분법적 시선을 지적할 수 있다. 즉, 가부장제 사회의 평가를 기준으로 하여 현모양처의 삶을 내면화한 ‘착한 신여성’과 자아실현과 표현을 중시하는 ‘나쁜 신여성’ 간의 구별이 발생하는 것이다.

15)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4), pp.88~89.

다.16)

구여성의 현실도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았다. 신식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 중에서도 사회의식에 있어서는 진보적이었던 경우가 많았다. 일제치하에서의 강제적 근대화 과정은 전통적인 틀에 갇혀 있었던 구여성들을 공적 영역으로 끌어내었는데, 이들 중에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 신여성 못지않게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자아의 각성을 일구어 낸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유컨대, '개념으로서의' 여성과 '현실로서의' 여성의 관계가 헤게모니적 담론에 의해 생성된 것이듯이, '신여성'과 '구여성'의 관계 또한 특수한 문화 속에서 구성되는 자의적인 관계라 할 수 있다. '젠더 정체성'이 기반하고 있는 이분법적 사고에 갇혀 있는 한 식민지 여성들의 물질적, 역사적 이질성을 담론적으로 식민화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통해서 '신여성' 혹은 '구여성'의 이미지는 구성적이면서도 단일한 것으로 재현될 수밖에 없다. 결국, 가부장제의 산물이기도 한 '신여성 대 구여성'이라는 이분법적 호명과 그것에 내포된 대립적 이미지가 갖는 허구성을 밝혀내는 작업은, 그들을 대변하는 식의 호명에 의해 권리를 박탈당했거나 그 존재가 지워진 사람들의 복잡한 삶과 역사, 투쟁을 복원하는 것이리라 할 수 있다.

4. 일제하 구여성의 변모와 여성정체성의 형성

일제하 식민지 사회에서 구여성의 삶과 경험은 어떠했을까. 그들은 여전

16)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동녘, 2001), p.69. "당시 여성 직업으로 환영받았던 교육계 종사 여성은 취업자 총수 1만 명에 겨우 5명이었다. 조선에 사는 일본인 여성이 1,000명 중에 27명이었음을 볼 때 일제치하에 놓인 조선 지식인 여성의 고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히 가족 담론과 사적 영역에 갇혀 근대적 주체로, 자율적인 개인으로 설 수 있는 기회를 갖지 못했을까. 일제시대의 사회적 담론 속에서 어렵잡게 확인할 수 있듯이 구여성은 단지 신여성으로 변화되어야 할 계몽의 대상으로서 존재했던 것일까.¹⁷⁾

이러한 의문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에 앞서 일러두어야 할 점은, 일제치하의 대다수 여성들이 가족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획득하게 되는 지위나 가치에 대해 인식하기 이전에 여성을 이 사회에서 억압받는 집단으로 미리 구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식민지 시대 구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특수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재생산, 노동의 성적 분화, 가족, 결혼, 모성 등의 개념이 서구의 주류 페미니즘에서 여성 억압의 일반적 기제로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역사적 맥락을 달리 하는 제3세계 여성들에게는 이 개념들이 동일하게 적용될 수 없다.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억압, 그들 간의 이해관계, 그들의 저항이 쉽게 일반화될 수 없으며, 따라서 실제 여성들의 다양성은 여성에 관한 의도적인 지배담론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다.

현실의 여성들을 억압과 해방이라는 이분법으로 제대로 바라볼 수 없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들은 때로는 자기희생과 수동성이라는 낡은 성별 분업적 가치에 여전히 갇혀 있기도 하지만, 식민지 상황에 놓인 민족의 구성원으로서의, 혹은 억압받는 계급의 구성원으로서의 자각을 통해 자신의 여성적 지위와 가치를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 특히 구여성들은 이제 더 이상 가부장제의 억울한 희생자라는 식의 고정불변의 이미지로 인식될 수 없다.

17) “구식부인을 어떻게 계몽시킬까”, 『신여성』(1931.11), pp.52~53.

바로 강경애의 소설은 이러한 문제를 분명히 제기하고 있다. 강경애는 여성과 남성의 서로 다른 경험 속에서 여성이기에 겪어야만 하는 중층적 고통, 즉 고통스런 출산, 남편의 학대, 강간과 성적 폭력, 생계유지를 위한 가혹한 노동 등을 그려낸 바 있다. 그런데 여성을 바라보고 여성의 삶을 형상화하는 강경애의 방식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대부분의 일제시대 문학 텍스트들이 여성을 **담론화**해 낸 방식, 특히 민족주의 진영의 남성 작가들이 모성을 담지한 어머니, 남편에게 버림받거나 헌신하는 아내, 가정이라는 사적 공간에 자발적으로 갇힌 여성, 성적 착취를 당하고도 그저 체념하는 여성 등 사회적으로 '이미 구성된' 정체성에 종속된 존재로 여성을 재현했던 것과 강경애의 방식이 분명히 대비되기 때문이다.

(1) 가부장이 부재한 공간의 체험과 「소금」

「파금」, 「어머니와 딸」을 제외한 작품들이 모두 간도에서 씌어졌을 정도로 강경애의 문학은 간도체험과 관련되어 있다. 그녀의 간도 체험은 최서해나 안수길의 간도 체험과 마찬가지로 3·1운동 직후부터 1940년대 말까지 그곳의 정치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1932년 만주사변을 기점으로 간도의 유이민들은 일본과 중국 군벌의 관계 변화에 따라 한편으로는 일제의 보호 명목과 추적과 간섭을 받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인 지주와 중국 관헌의 압박과 배척을 받아 이중, 삼중의 민족적, 계급적 억압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역사적 상황은 항일무장투쟁이 전개되었던 간도에서의 생활 체험을 통해 잘 형상화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강경애의 「소금」(『신가정』 1934.2.5)은 작가의 간도 체험이 본격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봉염 어머니의 일대기는 '소금'으로 상징되는 기본적인 생존 조건도 갖추지 못한 대다수 여성들의 현실에 대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고향에서 빛에 몰려 용정의 한 농촌으

로 이주해 온 봉염이네 가족은 지주 팡동의 땅을 부치지만 번번이 타작 마당에서 빼앗기고 만다. 게다가 지주 팡동을 만나러 갔던 봉염 아버지는 공산당의 손에 죽고, 아들 봉식 또한 가출해서 공산당에 입당했다가 잡혀 결국 **총살당한다**.

한편 팡동의 집에 기거하던 봉염 어머니는 팡동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고 아이까지 가진 상황에서 내쫓겨 헛간에서 아이를 낳게 된다. 지주 팡동과 봉염 어머니의 관계는 계급적 모순에 민족적, 성적 모순이 중첩되어 있는 양상을 전형적으로 보여준다. 소설 초반부에서 봉염 어머니는 팡동에게 벼를 다 빼앗기고 심지어는 정조를 유린당하고도 그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인물이다. 지주에게 강간당하여 원치 않는 자식을 낳게 되자 곧 아기를 죽이려 하지만, “전신을 통하여 짜르르 흐르는 모성에” 때문에 그냥 기르게 된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생계의 수단으로 남의 집 아이의 유모 노릇을 하느라 정작 자신의 친자식인 봉염, 봉희를 돌보지 못하여 모두 병으로 잃은 후에도 자신이 젖어미 노릇을 하며 키운 명수를 그리워한다. “제 자식 죽이고 남의 새끼 보고 싶어하는 이 어리석은 년”이라고 자기자신을 비하하면서도 명수에 대한 그리움은 제어할 수 없었다.

이후 봉염 어머니는 남편과 아들이 살해당하는 감당하기 힘든 불행을 뒤로 한 채, 생존을 위해 소금 밀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 부딪친 공산당이 마적단이나 일본 군경과는 달리 소금도 빼지 않고 “여러분! 당신네들이 웨이 밤중에 단잠을 못 자고 이 소금짐을 지게 되었는지 알으십니까”라고 설파하자 점차 의식의 각성을 체험하게 된다. 결말에 이르러, 소금을 빼앗아가는 일본 경찰에 대항하여 벌떡 일어서는 봉염 어머니의 행위는 순응과 인내로 일관하던 그녀가 보여주는 최초의 저항인 것이다.¹⁸⁾

18) 김양선, 「강경애-간도 체험과 지식인 여성의 자기반성」, 『역사비평』(1996.여름호), p.356. 필자는 봉염 어머니의 저항이 계급적 민족적 각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궁극적으로 여성에 대한 억압의 기제들이 가부장적 질서나 성차별적 관행을 매개로 해

이 텍스트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빈민 여성인 '봉염 어머니'의 의식의 변화이다. 「소금」의 초반부에서 봉염 어머니는 남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그를 따라 죽기로 결심한다. 즉 남편과 분리된 자신의 삶을 생각하지 못했을 정도로 그는 봉건적인 여성이었다. 또 그런가 하면, 남편과 아들을 잃은 후 중국인 지주 팡둥에게 겁탈당한 채 내쫓기고 가난 속에서 두 딸마저 모두 잃는 현실의 고통을 남편의 부재 탓으로 돌렸던, 한마디로 매우 의존적인 여성이었던 것이다.

그러던 봉염 어머니의 의식이 자기정체성에 대한 자각의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만주에서 남편과 장남 봉식이 살해당하는 사건을 계기로, 여성 억압의 구조적 원인이라 할 수 있는 '가부장적' 핵가족이 붕괴되는 상황에 그가 직면하게 되었다는 점이다.¹⁹⁾ 가부장적 질서를 정상적인 것으로 여기는 당시 상황에서 봉염 어머니의 가정은 그만큼 위기에 노출될 수밖에 없었다.

「소금」 뿐 아니라 「마약」, 「모자」 등 강경애의 소설에서 만주에 정착한 여성 주인공들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들이 일자리를 찾아 뿔뿔이 흩어지거나 남편이나 아들이 조선독립운동이나 반일혁명 활동을 위해 집을 떠나게 되는 상황을 감당해야 했다. 한마디로 이들 7여성들은 가부장적 존재하지 않는 공간에 놓이게 되는 것을 계기로 타인에 더 이상 의존적일 수 없게 되는데, 스스로 가장이 되어 생존을 위한 새로운 경험에 부딪쳐 가면서 이들은 삶의 주체로서 재탄생한다. 「소금」에서 봉염 어머니는 남편과 자식 등 모든 혈육을 잃어버린 상태이다. 결말에서 소금을 빼앗아가는

서 나타나는 것까지는 꿰뚫고 있지 못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19) 또 다른 이유로, 「소금」의 배경이자 창작 공간이 1930년대 간도 지방이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민족, 계급, 성별을 둘러싼 모순이 중첩되어 나타난 간도 지역의 특수한 현실적 조건과 모성 및 가족 이데올로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즐고, 「강경애 문학에 나타난 지배담론의 영향과 여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관한 연구」, 『어문학』 제 85집(한국어문학회, 2004)에서 논의한 것으로 대신하고자 한다.

일본 경찰에 대항해서 벌떡 일어나는 그녀의 행위는, 더 이상 그 누구를 '위한' 이타적 희생으로서의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삶에 스스로 책임을 지고 자신의 삶에 스스로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2) 공적 공간의 체험과 「인간문제」

일반적으로 자본주의에서의 성적 분업은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각각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으로 엄격히 구분한다. 그 결과 여성의 모든 노동은 가사, 육아, 그리고 감성 중심의 노동이라고 재정의되고 사적 영역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식민지 현실에서 여성들은 사회의 공적 영역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그들에게 이러한 공적, 사적 영역의 구분은 더 이상 무의미해지는 것이다. 특히, 일제에 의해 주도되는 근대화 과정을 통해 가내에서 수행되었던 수공업이 근대적 방직공장으로 대체되면서 여성들은 '공장'이라는 새로운 공적 공간을 경험하게 되고, 농촌과 광산에서도 전통적으로 여성이 하지 않았던 노동 과정에 여성이 강제로 흡수되었던 것이다.²⁰⁾

당시 농촌 경제 파탄으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농민들은 일인 경영 농장에서 저임금의 농업노동을 하거나 도시로 유랑되어 일용직 막노동이나 공장 노동자로 일하게 되었다. 그러나 차별적 임금 정책 등으로 인하여 가장의 수입으로 가족 생계를 감당할 수가 없어 부인과 자녀들까지 일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공장 경영자들은 특히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로 이윤을 올렸다. 여성노동자 임금은 일인 남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저임이었으며, 10~12시간의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 환경 및 일인 감독의 학대와 민족적 차별 아래서 고된 노동을 해야만 했다. 여성노동자들은 봉건적 성차별과 식민지적 민족차별과 자본가의 노동력착취라는 이중삼중의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다.²¹⁾

20) 정진성, 「동아시아의 공사(公私) 개념과 성(gender): 근대국가와 민족, 성」, 최원석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문학과 지성사, 2000), pp.212~213.

『인간문제』는 식민지 시기 농촌과 도시를 배경으로 농민 대 지주, 노동자 대 자본가의 갈등을 첫째와 여주인공 선비, 간난이를 통해 그려낸 장편 소설이다. 특히 이 소설은 여성 인물들의 주체적인 각성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성 노동자들의 삶을 당대 현실과 관련하여 사실적으로 형상화해 내었다는 점에서 그 문학사적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왔다.

선비와 간난이는 지주 정덕호의 성적 대상으로 이용당하거나 과도한 노동으로 시달리다가 결국 고향을 탈출하여 도시로 가서 노동 현장에 뛰어들게 된다. 그러나 이들은 거기서도 공장 감독들의 노골적인 성적 희롱과 극도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직면한다. 특히 선비와 간난이가 농민에서 노동자로 변모해 가는 것, 여성으로서의 자기각성을 해 나가는 것은 당시 농촌의 농민분해과정이나 도시 노동자에 대한 계급적 착취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진 성적 억압에 대한 체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더욱 크다.

『인간문제』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노동 통제의 다양성과 심각성을 절실하게 보여주는데, 즉 임금이나 벌금 제도, 기숙사 제도, 남성 감독관, 공장 내 교육을 통한 이데올로기 주입 등이 바로 그 실상을 대변하고 있다. 남성 노동자의 4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임금에대기 “히리는 데로만 잘 순종하면 매일 상금을 주겠다”며 돈을 미끼로 한 감독의 성적 희롱에 직면한 선비는 “우리들을 부리는 감독들과 그들 뒤에 있는 인간들은 덕

21) 박용옥, 『한국여성의 항일민족운동추진과 그 특성』, 『아시아문화』 12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430~431. 1920년대 이후 사회주의 사상의 영향으로 여공파업운동이 급속하게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운동에는 식민지 지배에 저항하는 민족주의 정신이 강하게 나타나 있었던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의 저항적 움직임이 여성 자신의 성적 정체성의 형성에 미친 영향은 과소평가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가부장적 민족주의는 지배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 사회의 다양한 민족주의 입장의 한 부분이지 전부는 아니라는 점과, 페미니즘의 적은 가부장제이지 민족주의 자체는 아니라는 점이 주목되어야 한다. (페미니즘, 가부장제,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정진성,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한국 여성학』 15권 2호) 참조)

호보다도 몇천 배 몇만 배 더 무서운 인간”이라는 간난이의 말을 듣고 계급의식과 여성으로서의 자기정체성에 눈뜨게 된다.

식민지 여성들이 공적 노동 공간에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식민지 사회의 자본주의화 과정에 있다. 당시 여성들은 매우 빠른 속도로 공장 노동에 흡수되어 갔는데 이는 일제가 싼 임금을 주고도 다방면으로 착취하기 쉬운 여성을 남성보다 더 선호했기 때문이다. 일제가 조선에 자본을 투자한 이유가 주로 저임금에 기초한 이윤 추구에 있다 보니 특정 업종에 여성이 집중되는 성별 분업 현상이 심화되었던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식민지 시기일망정 여성들이 접하게 된 공적 노동공간은 해방의 동력으로서 근대가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새로운 해방적 측면과 함께, 서구 중심의 자본주의 이데올로기로서 근대화가 인간에게 가하는 주체의 규율화, 사물화, 소외, 착취를 동시에 가능하게 해 준다. 그 중에서도 공장이라는 새로운 노동공간의 체험은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그곳에서 여성은 더 이상 공적 존재와 대립되는 의미에서의 사적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은 성별화된 노동 경험과 섹슈얼리티에 대한 착취를 통해 가장 차별적이고 억압적인 자본주의의 모순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또 그것을 온몸으로 버텨내고 저항하는 양면을 극명하게 보여준다.²²⁾

이러한 현실에서 작가 강경애는 출산, 육아, 가사라는 사적 영역에 갇혀 있던 식민지 여성들이 공적 공간으로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제 치하에서의 여성들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특히, 그의 소설에서 구여성이 공적인 노동 공간을 체험하게 되는 것은 남편이 부재하거나 혹은 있더라도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더욱 **혹독할** 수밖에 없었다. 나아가 근대가 여성에게 제공한 새로운 직업들은 남성중심의 사회구조에서 여전히 부차적이고 종속적

22) 태혜숙, 『한국의 식민지근대와 여성공간』(여이연, 2004), p.316~334.

인 면을 갖지만, 여성들로 하여금 예전과는 다른, 즉 가정 밖의 사회적 공적 영역에서의 경험을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을 또한 분명히 하고 있다.

『인간문제』에서 선비의 삶이 잘 보여주고 있듯이, 한때 현실에 안주했던 구여성은 공·사 영역의 편협한 구분을 초월하는 생산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간다. 그들은 가부장적 순결 개념에 더 이상 연연하지 않고 노동과 (재)생산의 주체임을 인식한 행위자로 변모한 것이다. 그 결과, 자본의 논리에 희생당하고 착취당하면서도 자본의 논리를 거슬러 갈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성적 폭력에 노출될수록 더욱 더 자신의 여성적 정체성을 자각해 나갈 수 있을 정도로, 구여성의 의식은 역동적으로 재현될 수 있었다.

5. 맺음말

이 글에서 필자는, 일제 시대 구여성을 성적 불평등과 계급적·민족적 착취의 희생자라는 획일적 이미지로 고정시키는 것에 반대하였다. 물론 이러한 시도를 통해, 그들을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적극적으로 싸우고 저항하는 주체로 그려내려는 것 또한 아니다. 말하자면, 이들 여성 집단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특수성 못지않게,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었던 수동적인 존재들이 '근대적 자각의 주체', '저항의 주체'로 전환될 수 있었던 새로운 삶의 조건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앞서 문제제기를 통해 필자는 서구 중심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라면 제 3세계 여성은 대상화될 수밖에 없고 진정한 주체로서 인식될 수 없음을 확인한 바 있다. 마찬가지로, 일제시대 구여성들에게 인고와 희생이라는 획

일적이고 고정된 이미지를 부여하는 당시 지배담론의 입장을 답습한다면, 구여성 또한 영원한 전근대의 상징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당시 구여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그들의 객관적 위치의 복원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일제 치하 현실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인식을 통해 '신여성'과 더불어 '구여성' 역시 식민지 조선의 근대성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었음을 드러내는 것은, 식민지 시대 여성문학을 연구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의 과제가 될 것이다.

□ 참고문헌

- 권보드래, 『연애의 시대』(현실문화연구, 2004), pp.11~280.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푸른역사, 2004), pp.1~393.
- 김미현 『한국여성소설과 페미니즘』(신구문화사, 1996), pp.9~427.
- 김수진, 「'신여성', 열려 있는 과거, 벗어 있는 현재로서의 역사 쓰기」, 『여성과 사회』(한국여성연구회, 2000), pp.6~27.
- 김양선, 「강경애-간도 체험과 지식인 여성의 자기반성」, 『역사비평』(1996.여름호), pp.346~362.
- 문옥표 외, 『신여성』(청년사, 2003), pp.21~319.
- 박용옥, 「한국여성의 항일민족운동추진과 그 특성」, 『아시아문화』 12호(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pp.419~434.
- 박혜경, 「강경애의 작품에 나타난 여성인식의 문제」, 『민족문학사연구』 23호(2003), pp.250~276.
- 서지영, 「식민지 시대 카페 여급 연구」, 『한국여성학』 제19권 3호(한국여성학회, 2003), pp.31~72.
- 송연옥, 「민족주의와 페미니즘의 불행한 결렬」, 『페미니즘 연구』 창간호(동녘, 2001), pp.53~70.
- 이상경, 「근대소설과 구여성-심훈의 <직녀성>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 연구』(소명, 2001), pp.174~199.

- 이연정, 「여성의 시각에서 본 모성론」, 『여성과 사회』 제6권(한국여성연구회, 1995), pp.160~183.
- 전경옥 외, 『한국여성근현대사①:개화기-1945년, 한국여성문화사』(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소, 2004), pp.11~390.
- 정진성, 「동아시아의 공사(公私) 개념과 성(gender): 근대국가와 민족, 성」, 최원식 외 엮음, 『발견으로서의 동아시아』(문학과 지성사, 2000), pp.189~ 228.
- 정진성, 「민족 및 민족주의에 관한 한국여성학의 논의」, 『한국 여성학』 15권 2호(한국여성학회, 1999), pp.29~48.
- 조은·윤택림, 「일제하 '신여성'과 가부장제: 근대성과 여성성에 대한 식민담론의 재조명」, 『광복50주년 기념논문집』(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회·한국학술진흥재단, 1995), pp.161~208.
- 태혜숙, 『탈식민주의 페미니즘』(여이연, 2001), pp.13~212.
- 태혜숙 외, 『한국의 식민지근대와 여성공간』(여이연, 2004), pp.17~373.
- Chandra Talpade Mohanty, 『경계 없는 페미니즘』, 문현아 역(여이연, 2005), pp.13~395.
- Gayatri Chakravorty Spivak, 『다른 세상에서』, 태혜숙 역(여이연, 2004), pp.13~552.
- Stephen Morten, 『스피박 넘기』, 이운경 역(앨피, 2005), pp.11~265.

Abstract

**A Study on the Identity of an Old Fashioned Woman in Korean
Woman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Kim, Min-Jeong

A gender-identity in the feminism debate in the past has construed the women as victims who shared a subordinate position. It is to perceive women of the third world country as the existences that are sluggish and non-historic. Especially, the Old Fashioned Women in Korean Woman Literature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have been reappeared as uniform images like the endurance and self-sacrifice. Now the objective understanding of old fashioned women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is necessary.

This study treated "InganMunje" and "Sogeum" that had been written by Kang, Gyung-Ae at large. "Sogeum" is treating the experience and the change of a woman who came into existence in space which a patriarch is absent in historic state that the family had disorganized. And "InganMunje" is treating the fact that the Women who had confined in a private ground under a capitalistic patriarchal system went forth into public ground and was conscious of her gender identity. In conclusion, an old fashioned woman was the subject who had composed a colony-modernity

key words : dichotomy, colony, old fashioned woman, feminism literature, patriarchy. woman-Identity, modernity.

■ 본 논문은 9월 30일 투고되어 10월 20일에 심사가 완료되었으며 11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

